

4. 산지향(山地港)에 깔린 제주성(濟州城)⁵⁾

- ◎ 수많은 민란(民亂), 천년의 영고성쇠(榮枯盛衰) 함께 살아
- ◎ 일제(日帝) 때 축항(築港)공사로 헐리기 시작 ... 해방(解放) 뒤
까지도

제주성은 원래 왕도가 있었던 곳이며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서는 목사(牧使)가 있는 관부(官府)로서 오랜 역사를 지닌 제주도에서 가장 값진 문화유적이었다. 이 소중한 유적이 지금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오현단(五賢壇) 뒷 모퉁이에 높이 7m에 길이 150m정도의 흔적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역사의 유적(遺蹟) 제주성

이 최후의 성곽진지마저 하필이면 바로 그 위에 도로선을 그어놓아

5) 『한라일보』 제18호 (1989. 05. 13).

10여 년 전에 하마터면 아주 없어져버릴 뻔했으나 몇몇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간신히 그 명맥을 오늘에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성지를 허물기 시작한 것은 1926년 제주 산지항(山地港) 축항공사가 착공되면서 부터였다. 일제는 이 유서 깊은 성을 허물면서 축항공사를 서둘게 되었는데 이 성돌이 바로 서방파제(西防波堤)와 동부두에 깔린 밑돌이 되었던 것이다. 한번 길을 터는 공사는 8·15 해방이 되어도 다를 게 없었다.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른바 ‘소래기동산’ [남수각(南水閣) 동쪽] 뒤편으로부터 동문과출소가 있는 근처까지 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을 보았다. 우리 동네 툇만이들은 ‘병정놀이’를 하면서 그 성돌이 트럭에 실려 나가는 것을 보았고 해방된 뒤에도 계속 허무는 것을 무심히 지켜보았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1481년간)을 보면 “제주읍성(濟州邑城)은 돌로 쌓은 성으로 둘레가 4,394척이며 높이는 11척이다. 성내에 물이 없으므로 가락천(嘉樂川) 밖으로 중성(重城)을 쌓게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나온 『탐라지(耽羅志)』나 『읍지(邑誌)』 등을 보면 “석성의 둘레가 5,489척에 높이 11척이며 격대(擊臺) 27, 타첩(垛堞) 404개가 있고 동·서·남 3문과 남·북 수문이 2개가 있다. 본래 대촌(大村)으로 삼성(三姓)의 거주지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창건은 탐라국(耽羅國) 때?

성 둘레가 늘어난 것은 1565년 목사 곽홀(郭屹)이 가락천 동쪽으로 동성을 확장했기 때문이며 그 밖에 성윤문(成允文, 1599년) 김영수(金



「제주성(濟州城) 남문(南門)이었던 「정원루(定遠樓)」」 이 사진은 1900년대에 촬영한 것으로 당시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永綏, 1780년) 이의식(李宜植 1847년) 등 여러 목사들이 성을 증축하거나 간성(間城)을 쌓고 있다. 제주성에는 위의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3대문이 있었는데 동성문은 ‘연상루(延祥樓)’로 동문과출소 서북쪽에, 남성문은 ‘정원루(定遠樓)’로 남문로터리 북쪽에, 서성문은 ‘진서루(鎭西樓)’로 무근성 입구 근처에 각각 있었다. 그리고 산지천(山地川)을 끼고 남쪽에 ‘소민문(蘇民門)’ 북쪽에 ‘중인문(重仁門)’ 등 홍예교(虹霓橋)로 된 두 개의 수문(水門)이 있었다.

그러면 제주성은 언제 창건된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일반적으로는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그 이전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일제 때까지 남았던 성곽 외에 이른바 ‘무근성’ 터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주성은 중세 이전에도 증개축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여러 기록에서 제주성이 ‘삼성(三姓)의 소거지인 대촌(大村)이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대 탐라국(耽羅國) 시대부터 성곽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제주 역사의 현장(現場)

일찍이 김태능(金泰能) 선생은 『양서(梁書)』의 “기속호성(其俗呼城) 왈 건모라(曰健牟羅)”를 인용하면서 신라에서 ‘건(健)’은 성(城)을 뜻하는 말로 ‘건’의 한자 사음이며 성읍지(城邑地)를 ‘건무라’라고 하였으며 탐라(耽羅)는 “담을 두룬 무라”로 역시 성읍지를 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처음에는 대촌(大村)[제주 성내]만을 의미했던 것이 점차 발전하여



제주성 (산지천 광제교 동편)



제주성 (제주기상청)

섬 전체를 의미하는 국호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에 근거를 둔다면 제주성은 이미 고대국가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다.

만약 제주성이 탐라국 때 축조된 것이라면 그야말로 탐라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천년의 영고성쇠(榮枯盛衰)를 겪은 유적이었다고



▶ 제주성지(제주시 이도1동) ▶ 1926년 일제는 산지향 축항공사를 위해 제주성을 헐었다. 그나마 남아있던 제주성 남동부 일대를 일부 복원함. 성 바로 북쪽의 나무가 무성한 곳은 오현단이다.

할 것이다.

1105년 탐라국이 고려에 병합된 뒤에 일어났던 난리들을 비롯하여 삼별초(三別抄)의 난, 목호(牧胡)의 난, 그리고 조선시대 말기에 잇달아 일어났던 난리들을 두루 치른 처참했던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하겠다.

1천여 왜구(倭寇) 격퇴

제주성은 섬 안에서 일어났던 난리 때는 성문이 부서지고 군중들이 성안으로 쳐들어오는 수난을 겪기도 했지만 그렇게 심했던 왜구 침입 때는 왜적으로 하여금 한 발짝도 성안으로 들여놓지 못하도록 한 궁지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싸움이 1555년(명종 10)의 왜구였다. 이때 1천여 명의 왜적들은 40여 척의 배에 나눠 타고 화북포(禾北浦)

로부터 상륙, 제주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3일 동안이나 맹렬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때 성에서는 김수문(金秀文) 목사를 중심으로 군민일체가 되어 철통같이 방어, 끝까지 항전 끝에 적을 물리치고 큰 전과를 올렸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왜구가 다시 제주성을 침공하는 일이 없었다.

제주의 역사와 함께 살았던 성, 그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보존할 수가 있었다면 참으로 자랑스런 사적이 되었을 것이라고 다시금 생각해 본다.